



 <a href="http://csf.kiep.go.kr/">http://csf.kiep.go.kr/</a> 2018. 10. 12.	<b>「이슈&amp;트렌드」</b> <b>中 광선강(广深港) 고속철 시대 개막과 경제효과</b> 작성   CSF (자료감수: 김익기 중국인민대학 석좌교수)
---	--

- 지난 9월 23일 광저우(广州)~선전(深圳)~홍콩(香港)을 잇는 광선강(广深港) 고속철의 전 구간이 개통됨.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거리가 더욱 좁혀짐으로써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강화되고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의 경제 번영과 발전에 힘을 보태 중국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광선강 고속철 건설은 1998년 홍콩 특별 행정구(香港特区, 이하 ‘홍콩특구’)가 처음 고안한 사업임. 이후 2004년 중국 철도부(铁路部)가 이를 국가 중장기 철도망 건설 계획 중 중국의 전 국토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4종 4횡(四纵四横) 고속 철도망 사업’에 합류시킴.
  - 2011년 말 광선강 고속철의 일부인 광저우~선전 구간의 개통 후 고속철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 1일 승객 유동량은 18만 명으로 해당 구간은 중국 남부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으로 자리 잡음.
  - 이번에 새롭게 개통한 광선강 고속철의 ‘홍콩 구간’ 길이는 26킬로미터(km) 밖에 되지 않지만, 주로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탓에 대부분의 구간은 지하 터널로 건설됨. 또한 201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개통이 3년 연장되었으며, 건설비용 역시 당초 책정된 예산이었던 440억 홍콩달러(약 6조 3,699억 원)의 두 배가 소요됨.
  - 광선강 고속철의 홍콩 구간은 △ 홍콩 △ 마카오 △ 선전 △ 광저우 △ 둥관(东莞) △ 후이저우(惠州) △ 주하이(珠海) △ 자오칭(肇庆) △ 포산(佛山) 등 웨강아오 대만구에 속하는 주요 9개 도시를 관통함. 뿐만 아니라 광선강 고속철과 더불어 웨강아오 대만구의 고속제도 교통망의 핵심인 ‘강주아오 대교(港珠澳大桥, 홍콩·마카오·주하이를 연결하는 6차선 해상대교)’가 연내 정식 개통될 예정임.
  - 홍콩 철도 유한공사(香港铁路有限公司)의 한 관계자는 “광선강 고속철의 홍콩 구간이 정식 개통됨에 따라 중국 본토 및 홍콩 거주민의 상호 왕래 및 교류가 빈번해지고 두 지역의 경제 융합과 발전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전망함.
- 광선강 고속철의 최단거리 구간인 홍콩 시주룽(西九龙)역~선전 푸톈(福田)역까지의 소요시간은 14분, 광저우 남(广州南)역까지는 47분 소요됨에 따라 광둥과 선전, 홍콩은 ‘1시간 생활권’이 현실화 됨. 또한 8시간 남짓이면 홍콩에서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에 도달할 수 있게 됨.

- 홍콩특구 운수주택국(运输及房屋局) 천판(陈帆) 국장은 “광선강 고속철의 홍콩 구간이 개통되면서 중국 본토의 44개 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선전 남(深圳南)역, 광저우 남역 등 6개 단거리 역과 △ 쿤밍(昆明) △ 상하이 △ 베이징 등 38개 장거리 역이 포함된다,” 고 소개함.
- 중국 본토와 홍콩을 오가는 광선강 홍콩 구간 고속철은 매일 100회 이상 운행됨. 중국 철도부는 2020년 광선강 고속철의 연간 승객 유동량이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실제로 광선강 고속철 개통에 따른 ‘1시간 생활권’의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자 금융, 물류, 부동산, 관광, 과학기술 등 분야의 다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광선강 고속철 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홍콩 시주룽 고속철 역사 안에는 공상은행(工商银行, ICBC), 중국은행(中国银行, BOC), 항생은행(恒生银行, HSBC) 등 은행 영업점이 입점해 있으며 홍콩관광발전국(香港旅游发展局), 홍콩 디즈니랜드 등의 관광 안내소가 운영 중임.
- 특히 광선강 고속철의 장거리 노선의 경우 산터우(汕头), 사오관(韶关), 형양(衡阳) 등 홍콩 거주민들이 즐겨 찾는 중국 화중·화남 지역의 관광명소를 통과해 중국 및 홍콩 관광 업계에서도 이를 겨냥한 ‘당일치기 기차여행’과 같은 여행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또한 중국 대표 IT 회사인 텐센트(Tencent, 腾讯)와 알리바바(Alibaba, 阿里巴巴)가 모바일로 고속철 표 구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모바일)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임. 중국 본토에서 표를 구매하는 승객은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微信支付) 및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支付宝)로 결제가 가능함. 반면 홍콩 현지에서 표를 구매하는 승객은 텐센트가 서비스 중인 홍콩판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홍콩 위챗 월렛(微信香港钱包)’으로 결제가 가능함.
- 중국은행 홍콩 유한공사(中国银行香港有限公司)의 한 수석경제연구원은 “향후 광선강 고속철의 홍콩 구간 운행 50년 동안 약 2,600억 위안(약 43조 원)의 직접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당초 건설비용의 3배에 달하는 규모,” 라고 분석함.

□ 한편 광선강 고속철이 개통되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홍콩은 광둥의 주요 외자 유치 지역으로, 광둥성 전체 외자유치 가운데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으며 광저우, 선전, 둥관이 유치한 홍콩 자본은 1,700억 달러(약 192조 원)를 돌파함.

- 광저우시 상무위원회(广州市商务委员会)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광저우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홍콩 자본은 총 51억 8,000만 달러(약 5조 8,948억 원)로 광저우가 유치한 외자 가운데 홍콩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4%인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광선강 고속철의 전 구간 개통은 광둥성과 홍콩 두 지역에 모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광둥성은 수출 중심의 외향형 경제발전 도시이자 세계 제조업 중심으로, 홍콩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중국증권망(中证网),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 봉황망(凤凰网) 등